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 사진예술 월간지



11월 서울사진축제 미리보기  
인터뷰 | 독일에서 돌아온 천경우 중앙대 교수  
세종문화회관 공연 앞둔 소리꾼 장사익  
스위스 프랑스 미국의 사진계 소식

Vol.283 **11**



Catherine Nelson, Danube Lilies I, 150 x 150cm, Pigment print, 2012

## Catherine Nelson

---

캐서린 넬슨 사진전 [Other Worlds]

갤러리 나우 | 11월 7일 - 12월 4일 | 02-725-2330



Catharina Nielsen, *Dahube Lake II*, 100 x 100cm, Pigment print, 2012.



Catherine Nottoli, Ebla, 150 x 150cm, Pigment print, 2012

지구, 우주, 오수, 원시 예고, 새 산물, 모네의 잠원, 꽃, 빛과 별, 아플과 거울, 산과 바다, 원시의 숲과 강의 깊은 산허리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노래와 서로 다시 태어난다. 벨슨의 다뉴브 시리즈는 처음 보았을 때 단번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머릿속의 상상력 풀다가 멀리면서 내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눈 앞에 들어오는 벨슨의 수많은 이미지들과 함께 어느새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수축 산회와 마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사진과 회화를 규정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캐서린 벨슨은 전통적인 사진에다 오랜 경험과 훈련에 의한 탄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되고 또 시적인 그녀의 감성 표현과 어우러져 현대성이 만들어낸 표현성과 풍경화를 완성한다. 즉 물감대신 카메라로 그리는 그림인 셈이다. 촬영된 이미지는 컴퓨터 안에서 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캐서린 벨슨 자신은 "카메라로 표현하는 화가" 라고 말한다.



Catherine Nelson, Fish Pond, 100 x 100cm, Pigment print, 2012

호주 출신의 캐서린 넬슨(Catherine Nelson)은 호주 NSW college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물방울주>, <해리포터와 마스카빈의 죄수>, <300>,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작가이다. 영화 작업을 통해 영상테크닉의 기본을 탄탄히 다진 작가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호주에서 가장 큰 기업예술상인 RBS클라이언트 보이시싱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Future Memories>, <Nut Americaine>, <Other world>와 <Danube> 등의 시리즈를 통해 호주, 유럽, 중국 등에서 촬영한 수 만 개의 자연의 디테일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루마니아의 디뉴브강 삼각주를 여행하며 흑해를 향해 흘러가는 강에서 채취한 수 천 점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디뉴브 시리즈> 또한 시각적인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인상파의 풍경화에서 영향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테크놀로지로 그린 그림 즉 "진화된 풍경화"라 말하고 있다. 하루의 변화되는 빛과 밤과 낮의 두 가지 감성이 한 작품에 녹아 있는 그녀의 놀랍고 새로운 시각적 해석으로 만들어진 영성은 새로운 진실로 다가감을 알게 하는 마력을



Catherine Nelson, Spring Blossoms I, 150 x 150cm, Pigment print, 2011

지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호주평론가 (아더 제이콥스)로부터 "산화적 현대 회화"라 명명되어지고, 이미 호주는 물론 파리와 중국전에서 이미 호명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벨기에에 거주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빌슨은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의 야생성과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드넓은 공간에 대한 성장기의 체험은 세계의 문명의 기원인 지역들을 재검하게 했고 자연에 대한 그녀의 해석을 통해 다시 창조된 이미지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 더 나아가서 우주와 지구, 자연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녀는 관람자의 시각을 주제로 한 풍경화, 시각적 관점들과 소실점을 활용한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현실을 초월한 상상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향후 또 다른 테크닉의 탐구, 영감적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순심 (갤러리 나우 대표)



Catherine Nelson, *Describe Day*, 150 x 150cm, Pigment print, 2012.

Mario Giacomelli

THEY WALK WITH THE BUCKS IN THE WOODS ON THE MOUNTAINS OF THE APENNINES